

독립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

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대단히 반갑습니다. 저는 아직 상기된 상태입니다. 마음의 울렁거림이 가시지 않았습니다. 광복절 행사에 온 국민들과 함께 광복의 감격을 되새기고 즐겁게 60주년을 맞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흥분했습니다. 여러분 모셔놓고 뵈면서도 잔칫날 들뜬 기분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. 해마다 맞이하는 광복절이 기쁘고 자랑스럽지만, 또 항상 아쉬움도 있습니다.

60년을 맞이하면서 아직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여러분 가슴속도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.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없지만 조금씩 풀려나갈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. 지난 일을 어떻게 다 원상회복할 수 있겠습니까.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든 치유하고 벽과 골을 메우고 넘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마무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.

제 생각에는 이대로 조금 노력하면 원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마음의 상처를 씻고 아쉬움을 풀고 화해하고 나눌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요,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. 그래야 여러분도 광복절을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. 정부가 다 해주면 좋은데, 정부가

항상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여러분이 극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. 역사의 경험만큼이나 여러분의 구성도 다릅니다. 그것이 숙제입니다.

다른 생각하고 다투기도 했던 분들이 한자리에 있습니다. 여러분이 과거를 치유하고 하나로 다가갈 수 있는 지혜를 낼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. 여러분이 이것이 길이라고 하면 온 국민이 따라갈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. 당장 깊은 대화를 하기는 어려워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 역사가 바로 정리돼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역사가 거울로 모범이 되고, 배움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